

독문학개론 2016SS

강의노트 2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수고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작품 읽는 시간을 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책을 읽는 것도 쉽지 않지만 책을 읽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더 힘들지요. 이것은 생각만 하다가 토요일 오후에 강의노트를 숙제처럼 하고 있는 교수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15일(화) 강의 내용

1. <외디푸스 왕>에 대한 그룹 토론과 물음 찾기: 우선 여러분들이 조원들과 함께 이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후에 작품에 대한 의견을 전체적으로 나누었습니다.
2. 이 작품이 '재미'있었는지에 대한 교수자의 물음에 대한 답은 긍정적인 답변이 약간 많았습니다. “막장 드라마”, “개연성”, “짜 맞춘 느낌”, “인간의 가혹한 운명”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교수자는 “개연성”이라는 단어로 몇 가지를 설명했는데, 이 개념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만 우선 알아두자고 제안했습니다.
3. 대신에 교수자는 시간과 공간의 측면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 생산된 작품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떻게 해서 그럴듯하게 읽히는가에 대해 고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영화와 같은 다른 예술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작품성에 관한 논의와는 별도로 우리는 어떻게 큰 어려움 없이 할리우드 영화를 ‘감상’할 수 있을까? 반대로 한국 영화는 다른 문화권 국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어쩌면 문화의 차이점만큼이나 인간을 가로지르는 공통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 등 많은 물음이 가능하니까요.
3. 끝으로 “나에게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붙들고 있기를 당부했습니다.

3월 17일(목) 강의 내용

1.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미학(美學)인가 작시술(作詩術)인가?
 - 1.1. 어원: Poetik, Poesie, poesis 등은 machen, herstellen, schaffen 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왜 어떻게 만든다는 것일까?
 - 1.2. <시학>의 구성: 1-5장(시 혹은 문학 전반), 6-22장(비극), 23-26장(서사)
 - 1.3. <시학>의 내용에 대한 간략한 정리
 - 1.3.1. <시학>은 예술 혹은 문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특정한 관객에게 특정한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설명하는 책에 가깝습니다.
 - 1.3.2. <시학>은 주로 비극(悲劇)을 다루고 있으며, 희극은 소실된<시학>2권에서 다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 1.3.3. 비극: 인간의 삶이 어떤 경우에 비극적이라고 느껴질까요? 아마 인간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파국적인 결과를 맞이할 때 그렇지 않을까요? 특히 원인이나 이유 등도 모르면서...
 - 1.3.4. 그런데 어떤 인물이 파국적인 결말을 맞이할 때 비극적일까요? 일정한 지위이나 어느 정도 고귀한 성품을 가진 인물이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파국으로 치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인물과 사건을 비극적이라고 느낍니다(악한이나 불한당이 몰락할 경우에는 그 반대겠지요). 이런 점이 <시학>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본받을만한 인물의 행동이 극중에서 모방(Mimesis/Nachahmung)되어야

하고 이런 인물이 비극에 빠져야 합니다.

- 1.3.5. <시학>은 비극을 구성하는 중요한 6가지 요소를 들고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플롯(Handlung/plot)을 꼽습니다. 비극은 극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사건과 사건 사이의 연관성/개연성이 높아야 합니다. 사건들 사이의 개연성과 필연성이 확보될 경우에 관객은 큰 의심 없이 극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전체적인 모습을 그려내야 합니다.
- 1.3.6. 이런 점에서 극의 길이 역시 적당해야 할 것입니다. 극이 짧으면 사건들 간의 연관성이 떨어져서 비극을 느낄 시간이 부족하고, 너무 길면 극의 긴장감이 떨어지게 되니까요.
- 1.3.7. 이렇게 구성된 비극에서 자신도 모르게 파국으로 치닫는 주인공(가령 외디푸스 왕)을 보고, 관객은 주인공과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동정을 느끼게(mitleiden/Mitleid) 됩니다. 동시에 그런 비극적인 운명이 나에게 일어나게 되면 어쩌나 라는 공포(Furcht)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극 속의 주인공과 동화되는 가운데 (동시에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겠지 라는 안도와 함께) 극이 끝나게 될 때, 관객은 자신도 모르게 “아” 혹은 “휴”를 내쉬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을까요?
- 1.3.8. <시학>의 의미는 레싱Lessing의 (<외디푸스 왕>과 달리 시민을 주인공으로 삼는) “시민 비극론”, 브레히트Brecht의 (극에 몰입되는 것을 막는) “서사극 이론” 등과 관련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 1.4. 우리는 왜 <시학>에 대해 배울까요? 개인적으로 이 원리가 연극, TV 드라마, 영화 등에 여전히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유효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2. 소포클레스 <외디푸스 왕>: 이 작품을 읽고 또한 토론했기 때문에 내용 파악은 어느 정도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스스로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가령 여러분이 연출가라면 극 중에서 외디푸스 왕의 어떤 모습을 강조할 수 있을까요? 출생의 비밀로 고뇌에 빠진 인간, 권력투쟁에서 이기려는 인물, 구국의 일념에 찬 왕 등등...
3. 다음 주 수업을 위해 계몽주의 개념의 중요성에 관해 간략하게 언급했고, 시간되면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의 앞부분을 보는 것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3월 22일(화) 강의 계획

1. <현자 나탄>과 계몽주의에 대한 그룹 토론, 2. 어떤 토론 주제가 가능할까?

3월 24일(목) 강의 계획

1. 레싱, <현자 나탄>, 계몽주의

유익한 강의를 위해 우리 모두가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 본 강의에서 논의되는 정치, 종교, 성 등에 관한 내용은 강의에 국한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점으로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지체하지 말고 알려주기 바랍니다.
- 포탈에 여러분의 개인정보(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업데이트하기 바랍니다.
- 특별한 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메일로 알려주기 바랍니다.

여느 때처럼 건강과 열공을 기원하며...